

유란시아서

<< [제 49 편](#) | [부분](#) | [내용](#) | [제 51 편](#) >>

제 50 편

행성 영주

50:0.1 (572.1) **라노난덱 아들** 계급에 속하지만 근무가 아주 전문화되어서, **행성 영주**들은 보통 다른 집단으로 간주된다. 2차 **라노난덱**으로서 **멜기세덱**의 인가를 받은 뒤에, 이 지역 우주 **아들**들은 별자리 본부에서 그들 계급의 예비군에 배치된다. 여기서부터 이들은 **체계 군주**에게 다양한 임무에 배치되며, 결국 **행성 영주**로 임명되고 사람이 사는 진화 세계를 다스리기 위하여 파송된다.

50:0.2 (572.2) 정해진 한 행성에 통치자를 배치하는 문제에서, **체계 군주**의 행동을 요하는 신호는,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을 정착시키고 총명한 진화 존재를 발달시킨 이 행성에서 활동할 우두머리 행정가를 파송해 달라고 그들로부터 요청을 받는 것이다. 진화된 필사 인간이 거하는 모든 행성은 이 계급의 **아들**인 행성 통치자를 배당받는다.

1. 영주의 임무

50:1.1 (572.3)

행성 영주와 그의 조수인 형제들은 (육신화를 제쳐 놓고)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이 시공의 비천한 인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격화된 접근법이다. **창조 아들**이 그의 영을 통해서 그 영역의 인간과 접촉하는 것이 참말이지만, **행성 영주는 파라다이스로부터 사람의 자손에게 연장되는, 성격을 가진 아들** 계급 중에 마지막이다. **무한한 영**은 운명 수호자와 기타 천사 존재들의 몸을 입고서 아주 가까이 온다. **우주의 아버지는 신비의 훈계자의 선(先)** 인격 계심이 됨으로 사람 안에 사신다. 그러나 **행성 영주는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마지막 노력을 나타낸다**. 새로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행성 영주는** 완벽한 신성을 가진 유일한 대표이며, **창조 아들(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자식)**과 **신성한 봉사자(지역 우주에서 무한한 영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다.

50:1.2 (572.4)

새로 사람이 사는 세계의 영주(領主)는 한 충성스러운 집단의 돕는 일꾼과 조수, 그리고 큰 무리의 봉사하는 영들에 둘러싸인다. 그러나 그러한 새 세계를 지도하는 집단은, 행성의 문제와 어려움에 선천적 동정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낮은 계급의 체계 행정가이어야 한다. 진화 세계에게 이해심 있는 통치자를 마련해 주려는 이 모든 노력에는, 인간 가까이 있는 이 성격자들이 바로 그들의 생각을 **최상 통치자들의 뜻보다 더 높임으로**,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부담이 늘어난다.

50:1.3 (572.5)

개별 행성에서 신(神)의 대표로서 아주 외롭게 있으니까 이 **아들**들은 심하게 시험 받으며, **네바돈**은 몇 번에 걸쳐 반란이 터지는 불운을 겪었다. **체계 군주와 행성 영주들을 창조할 때,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로부터 갈수록 더 멀어지는 개념을 성격자로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 한 개인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비례 감각을

않을 위험이 늘어나고, 수많은 계급의 신다운 존재들의 가치 기준과 관계, 그리고 단계적으로 얻는 그들의 권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아버지**가 지역 우주에 친히 계시지 않는 것은 또한 이 **아들들** 모두에게 어떤 믿음과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 된다.

50:1.4 (573.1) 그러나 이 세계 영주들이 사람 사는 구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그르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들의 성공은 나중에, 세계의 원시인에게 더 높은 형태의 인간 생명을 접목시키려고 오는 **물질 아들**의 임무를 대단히 수월하게 만든다. 그들의 통치는 또한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위하여 그 행성을 예비하는 데 많이 기여하며, 이 **아들들**은 나중에 여러 세상을 심판하고, 연속되는 섭리 시대를 개시하려고 온다.

2. 행성의 행정

50:2.1 (573.2) **행성 영주들**은 모두 **가브리엘**의 우주 행정부 관할 밑에 있는데, **가브리엘**은 **미가엘**의 최고 집행자이다. 한편 직속 권한으로 볼 때, **영주들**은 **체계 군주**의 집행 명령에 지배된다.

50:2.2 (573.3) **행성 영주**는 어느 때라도 예전에 자신의 교육자이자 후원자였던 **멜기세덱**들의 상담을 구해도 좋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임의로 요구되지는 않으며, 그러한 도움을 자진해서 요청하지 않으면, **멜기세덱**들은 행성의 행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세계 통치자들은 또한 24 장로의 조언을 이용해도 좋은데, 이들은 체계의 수여 세계들에서 모집된다. **사타니아**에는 현재 이 상담자들이 모두 **유란시아** 토착민이다. 별자리 본부에는 비슷한 70자 회의가 있고, 이들은 또한 그 영역의 진화 존재들 중에서 선택된다.

50:2.3 (573.4) 진화하는 여러 행성에서 초기의 불안한 기간에는 대체로 독재 정치로 다스린다. **행성 영주**는 전문화된 집단의 조수들을 행성의 조수 군단 가운데서 조직한다. 그들은 보통 12자 최고 회의로 자신을 둘러싸지만, 이것은 다른 세계에서 다르게 선택되고 다양하게 구성된다. 한 **행성 영주**는 또한 자기 집단의 **아들** 중에서 셋째 계급을 하나 이상, 그리고 때때로 어떤 세계에서는, 자신 계급인 2차 **라노난덱** 동료 중에서 하나를 조수로서 가져도 좋다.

50:2.4 (573.5) 한 세계 통치자의 참모진 전체는 **무한한 영**의 성격자, 어떤 부류의 상급 진화 존재, 그리고 다른 세계들에서 온 승천 필사자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참모진은 평균 약 1천 명에 이르며, 그 행성이 진보함에 따라서, 이 조수들의 무리는 10만까지 또는 그보다 더 늘어나도 좋다. 조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라도, **행성 영주**는 그 형제, **체계 군주**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되고, 그 탄원은 당장에 허가를 받는다.

50:2.5 (573.6) 행성들의 성질 · 조직 · 행정은 크게 다르지만, 모두가 사법(司法)을 담당하는 법정을 마련한다. 지역 우주의 사법 체계는 **행성 영주**의 법정에서 시작되는데, 그의 개인 참모진에서 한 참모가 이를 주관한다. 그러한 법정의 선포는 상당히 아버지답고 자유 재량의 태도를 반영한다. 행성 거주자의 통제를 넘는 모든 문제는 고등 법정에 올리는 상소(上訴)에 지배된다. 그러나 영주의 세계 영토의 사무는 대체로 그의 개인적 재량에 따라서 조정된다.

50:2.6 (574.1) 떠돌아다니는 여러 화해자 위원회가 행성의 법정에서 봉사하고 이를 보조하며, 영 통제자와 물리 통제자들은 이 화해자들의 조사 결과에 지배된다. 그러나 아무런 임의적 집행도 **별자리 아버지**의 찬성 없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최고자들이** 사람의 나라에서 다스리기” 때문이다.

50:2.7 (574.2) 행성에 배치된 통제자와 변압자들도 또한 천사와 기타 계급의 하늘 존재들과 함께, 이 후자인 성격자들을 필사 인간의 눈에 보이게 만드는 일에 함께 일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돕는 천사, 그리고 **멜기세덱**들조차, 진화 세계의 거주자에게 자신을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행성 영주** 참모진의 일부로서 하늘 가는 필사자들을 체계 수도에서 데려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영역의 거주자들과 의사 소통을 수월하게 하려는 것이다.

3. 영주의 유형 참모진

50:3.1 (574.3) 역사가 짧은 세계로 갈 때, **행성 영주**는 보통 지역 체계 본부에서 한 집단의 자원하는 승천 존재들을 데리고 간다. 이 승천자들은 초기에 종족을 개량하는 작업에 조언자와 조수로서 영주를 따라간다. 이 집단의 물질 조수들은 영주와 그 세계 종족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유란시아** 영주, **칼리가스티아**는 그러한 조수 1백 명으로 이루어진 한 단체를 거느리고 있었다.

50:3.2 (574.4) 그러한 자원하는 조수들은 체계 수도의 시민이며, 그들 중에 아무도 그들에게 깃드는 **조절자**와 융합하지 않았다. 그러한 자원 봉사자의 **조절자**의 지위는 이 상물질 진보자가 예전의 물질 상태로 임시 돌아가는 동안에, 체계 본부에서 거주 지위를 가진 것으로 남아 있다.

50:3.3 (574.5) 형체를 짓는 건축가, 곧 **생명 운반자**들은 그러한 자원자들에게 새 육체를 마련해 주며, 행성에서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이 육체를 차지한다. 이 인격자 형태는 그 영역의 보통 질병에서

면제되지만, 초기의 상물질 몸처럼, 기계적 성질을 가진 어떤 사고(事故)가 일어날 수 있다.

50:3.4 (574.6) 영주의 유형(有形) 참모진은, 두 번째 **아들이** 그 구체에 도착할 때, 다음 판결과 연관되어 보통 그 행성에서 옮겨진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여러 가지 임무를 그들이 함께 낳은 자손, 그리고 어떤 우수한 자원 토착민에게 맡기는 것이 관습이다. 영주(領主)의 이 조수들이 토착 종족들의 우수한 집단과 짝짓도록 허락된 세계에서, 그러한 자손이 보통 그들의 뒤를 잇는다.

50:3.5 (574.7) **행성 영주**의 이 조수들은 그 세계의 종족들과 짝짓는 일이 드물고, 반드시 자기들끼리 짝을 짓는다. 이 결합에서 두 등급의 존재가 생겨난다: 1차 부류의 중도인(中道人)과 어떤 높은 부류의 물질 존재들인데, 후자는 **아담**과 **이브**가 도착할 때 그들의 부모가 그 행성에서 옮겨진 뒤에, 영주의 참모진에 딸린 채로 남는다. 이 아이들은 어떤 비상시를 제외하고, 필사 종족들과 짝짓지 않으며, 그때에도 오직 **행성 영주**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런 경우에, 그들의 자녀들 — 유형 참모진의 손자들 — 의 지위는 그들의 시대와 세대의 우수한 민족의 출신과 같다. **행성 영주**의 이 준(準)물질 조수들의 자손에게 모두 **조절자**가 깃든다.

50:3.6 (575.1) 영주의 섭리 시대 끝에, 이 “복귀한 참모진”이 **파라다이스** 생애를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체계 본부로 돌아갈 때가 오면, 이 승천자들은 물질 육체를 돌려줄 목적으로 **생명 운반자**들에게 출두한다. 그들은 변신하는 잠에 들어가서, 그들의 필사의 옷을 벗고 상물질 형태를 입은 채로 깨어나며, 체계 수도로 돌아가는 천사의 수송을 위하여 준비된다. 거기에는 떨어져 있던 **조절자**들이 그들을 기다린다. 그들은 자기의 **예루셈** 동기생들보다 온전히 한 섭리 시대가

뒤떨어지지만, 그들은 독특하고 보기 드문 체험을 얻었고, 이것은 하늘 가는 필사자의 생애에 진귀한 장(章)이 된다.

4. 행성의 본부와 학교

50:4.1 (575.2) 영주의 유형(有形) 참모진은 사람을 훈련하고 교양을 가르치는 여러 행성 학교를 일찍부터 조직하며, 거기서 진화 종족들의 정예가 교육받고, 다음에 그들의 민족에게 더 좋은 이 길을 가르치려고 파송된다. 영주의 이 학교들은 물질로 지어진 행성 본부에 자리잡는다.

50:4.2 (575.3) 유형 참모진은 이 본부 도시의 설립과 연결된 물리적 작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한다. **행성 영주**의 초기 시절에 그러한 여러 본부 도시, 곧 촌락들은 **유란시아** 필사자가 상상할까 싶은 것과 아주 다르다. 후세와 견주어 보면 이 촌락들은 간단하며, 광물로 치장되고 비교적 진보된 물질 구조의 특징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이 동산 본부 주위에 집중하는 **아담**의 체제와 대조되며, 이 본부로부터, 그들이 종족들을 위하여 할 일은 우주 **아들**들의 제2 섭리 시대에 수행된다.

50:4.3 (575.4) 너희 세계에서 본부 촌락에는 모든 인간 거주지에 풍부한 땅이 마련된다. 멀리 떨어진 부족들은 사냥과 먹을거리 찾아다니는 일을 계속했지만, 영주 학교의 학생과 선생은 모두 농사 짓는 사람이요 원예가였다. 시간은 다음 직종 사이에 대체로 똑같이 나누어진다:

50:4.4 (575.5) 1. 육체 노동. 집을 짓고 꾸미는 것과 관련하여, 땅을 경작하는 것.

50:4.5 (575.6) 2. 사회 활동. 놀이의 연출과 문화적 사회 집단.

50:4.6 (575.7) 3. 교육적 적용. 가족 및 집단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개인의 교육. 이것은 전문화된 학급 훈련으로 보충된다.

50:4.7 (575.8) 4. 직업 훈련. 결혼 및 가정(家庭) 관리 학교, 예술 및 공예 훈련 학교, 선생들에게 — 세속(世俗) · 문화 · 종교 — 훈련을 주는 학급.

50:4.8 (575.9) 5. 영적 교양. 선생들의 형제 정신, 어린아이 및 청년 집단의 계몽, 그리고 양자 · 양녀로 받아들인 토착민 아이들을 그 민족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훈련하는 것.

50:4.9 (575.10) **행성 영주**는 필사 존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참모진의 준물질 존재들의 진술을 믿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다. 그러나 이 교양과 훈련을 받는 학교들은 각 행성의 필요에 잘 적응되어 있다. 이 다채로운 배움의 기관에 들어가려는 노력으로, 사람의 종족들 사이에서 격심하고 칭찬받을 경쟁이 곧 일어난다.

50:4.10 (575.11) 그러한 교양과 성취가 있는 세계 중심에서 모든 민족에게 정신을 높여 주고 교화시키는 영향이 차츰 퍼지며, 이것은 느리고 확실하게 진화 종족들을 변화시킨다. 그동안에 둘러싼 민족들 중에서 영주의 여러 학교에서 양자 · 양녀가 되고 훈련을 거치고, 교육받고 영적으로 감화를 받은 아이들은 그들이 태어난 집단으로 돌아가며, 힘이 자라는 데까지, 거기서 새로운 힘찬 배움과 문화의 중심을 건설하고, 영주 학교의 계획에 따라서 계속 운영한다.

50:4.11 (576.1) **유란시아**에서 행성의 진보와 문화의 발전을 위한 이 계획은 잘 진척되었고 아주 흡족하게 진행되었다. 그때 **칼리가스티아**가 **루시퍼** 반란에 가담하여, 갑자기 그 사업 전체가 오히려 아주 치욕스러운 종말에 이르렀다.

50:4.12 (576.2) 내 계급의 아들 중에 하나인 **칼리가스티아**의 냉담한 배반을 내가 전해 들은 것은 이 반란에서 가장 깊은 충격을 주는 사건 중에 하나였다. 그는 숙고한 가운데, 미리 사악한 생각을 품고, 당시에 운영되던 모든 **유란시아** 행성 학교에서 마련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왜곡하고 거기에 독(毒)을 섞었다. 이 학교들은 빠르게, 철저히 패망했다.

50:4.13 (576.3) **영주**의 육체화된 참모진과 관련된 승천자 자손 가운데 다수는 계속 충성하였고, **칼리가스티아**의 계열에서 탈주했다. 이 충성파는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리자들의 격려를 받았고, 후일에 그들의 자손은 행성에서 진실과 정의의 개념을 지지하기 위하여 많이 수고하였다. 이 충성스러운 전도사들이 한 일은 **유란시아**에서 영적 진실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용감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아버지**의 통치에 대한 지식이 얼마큼 살아남도록 지켰고, 세상 민족들을 위하여 다양한 계급의 신다운 **아들**들이 행성에서 연속하여 다스린다는 섭리 시대 개념을 보존하였다.

5. 진보하는 문명

50:5.1 (576.4) 사람이 사는 세계를 다스리는 충성스러운 영주는 최초로 배치된 행성에 영구히 소속된다.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그들의 섭리 시대는 오고 갈지 모르지만, 성공적인 **행성 영주**는 그 영역의 통치자로서 계속한다. 그가 하는 일은 더 높은 **아들**들의 임무와 아주 독립되어 있으며, 행성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고안되었다.

50:5.2 (576.5) 문명의 진보는 어느 두 행성에서도 좀처럼 같지 않다.

필사자의 진화가 전개되는 그 세부는 수많은 상이한 세계에서 아주 다르다. 물리적 · 지적 · 사회적 노선을 따라서 행성의 발전이 이렇게 많이 다양화되는데도, 진화하는 구체들은 모두 아주 분명한 어떤 방향으로 진보한다.

50:5.3 (576.6) **행성 영주의** 인자한 통치는 **물질 아들로** 인하여 확대되고,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정기적 임무가 이따금 끼어든다. 그러한 **영주의** 통치 밑에서, 시공의 보통 세계에 있는 필사 민족들은 연달아 다음 일곱 가지 발전 시대를 거칠 것이다:

50:5.4 (576.7) 1. 영양 시대. 인간이 되기 이전의 생물, 그리고 여명기의 원시 종족들은 주로 먹을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이 진화 존재들은 깨어 있는 시간을 먹이를 찾거나,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싸움에 보낸다. 먹이를 찾는 것은 뒤따르는 문명의 이러한 초기 조상의 머리 속에서 가장 우선한다.

50:5.5 (576.8) 2. 안전 시대. 원시의 사냥꾼이 먹을거리를 찾는 일로부터 얼마큼의 시간이라도 절약할 수 있게 되자마자, 그는 이 여가를 자신의 안전을 높이는 데 쓴다. 전쟁하는 기술에 점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 집이 강화되며, 공통으로 가진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외인(外人)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불어넣음으로 씨족들이 단결된다. 먹을거리가 해결된 뒤에 사람은 반드시 자아 보존을 추구한다.

50:5.6 (577.1) 3. 물질적 편안의 시대. 먹을거리 문제가 얼마큼 해결되고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고 난 뒤에, 추가로 얻는 여가는 개인의 편안을 늘이기 위해서 이용된다. 사치가 인간의 활동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필요와 싸움을 벌인다. 그러한 시대는

폭정 · 불관용 · 포식(飽食) · 만취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다. 종족들의 연약한 구성원이 난폭하고 잔학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쾌락을 추구하는 이 약골들은 진보하는 문명의 더 많은 구성원, 튼튼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구성원에게 차츰차츰 정복된다.

50:5.7 (577.2) 4. 지식과 지혜의 추구. 먹을거리 · 안전 · 쾌락 · 여가는 문화가 발전하고 지식이 보급될 기초를 마련해 준다.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은 지혜를 낳고, 한 문화가 경험을 얻음으로 어떻게 이익을 얻고 개선하는가 배웠을 때, 문명이 정말로 다가온 것이다. 먹을거리, 안전, 물질적 편안이 아직도 사회를 지배하지만, 앞을 내다보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갈급히 찾고 지혜를 목마르게 찾는다. 아이들에게 누구나 실습으로 배우는 기회가 주어지며, 교육이 이 시대의 표어이다.

50:5.8 (577.3) 5. 철학과 형제 정신의 시대. 생각하기를 배우고 경험으로 이익을 얻기 시작할 때, 필사자는 냉정하게 된다 — 마음 속에서 이치를 따지고, 사물을 차별하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 이 시대의 사회는 윤리를 찾게 되고, 그러한 시대의 필사자는 참으로 도덕적 존재가 된다. 그러한 진보하는 세계에서 지혜로운 도덕적 존재는 인간의 형제 정신이 자리잡게 만들 능력이 있다. 윤리와 도덕이 있는 존재는 황금률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가 배울 수 있다.

50:5.9 (577.4) 6. 영적 분투의 시대. 진화하는 필사자가 육체적 · 지적 · 사회적 발전 단계를 거쳤을 때, 머지않아 영적 만족감과 우주의 이해를 추구하도록 그들을 재촉하는 개인적 통찰력 수준에 다다른다. 종교는 공포와 미신(迷信)의 감정 분야에서 우주의 지혜와 개인의 영적 체험을 얻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일을 마친다. 교육은 목적 달성을 얻으려 애쓰고, 문화는 우주의 관계와 참된 가치

기준을 파악한다. 그러한 진화하는 필사자는 진정하게 교양이 있고, 참되게 교육받고, 지극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50:5.10 (577.5) 7. 빛과 생명의 시대. 이때는 육체의 안전, 지적 확장, 사회적 문화, 영적 성취의 시대들이 연속되어 번창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런 업적은 우주와 조화되고 사심(私心) 없는 봉사로서 이제 섞이고, 관련되고, 조정된다. 유한한 자연과 천부의 물질 한계 안에서, 숭고하고 안정된 이 시공 세계에서 연달아 사는 세대, 진보하는 세대들이 진화로 성취하는 가능성에 아무런 한계가 지워지지 않았다.

50:5.11 (577.6) 세계 역사에서 연이은 여러 섭리 시대와 행성이 진보하는 진취적 시대를 통해서 자기의 구체에서 수고한 뒤에, 빛과 생명의 시대가 개시되고 나서, **행성 영주**는 **행성 군주**의 자리로 승진된다.

6. 행성의 문화

50:6.1 (578.1) **유란시아**의 고립된 상태는 **사타니아**에 있는 너희 이웃의 생활 및 환경의 많은 세부를 발표하려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의 이 발표 사항은 행성이 격리되고 체계가 고립된 것에 제한을 받는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을 깨우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이러한 금지 조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허락된 범위 안에서 너희는 보통 진화 세계의 진보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너희는 그러한 세계의 경력을 현재 **유란시아**의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

50:6.2 (578.2) **유란시아**에서 문명의 발전은 영적 고립의 불운을 겪은 다른 세계들의 발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주의 총성스러운

세계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의 행성은 모든 국면의 지적 진보와 영적 성취 면에서 가장 뒤죽박죽이 되고 몹시 뒤떨어진 듯하다.

50:6.3 (578.3) 너희 행성이 불운을 겪었기 때문에, **유란시아인**은 정상 세계의 문화에 관하여 많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진화 세계들이, 아니 가장 이상적인 세계에서도, 인생이 꽃으로 뒤덮인 평안한 잠자리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필사 민족들의 초기 생활에는 언제나 투쟁이 따른다. 노력과 결심은 살아남는 가치를 얻는 데 필수 부분이다.

50:6.4 (578.4) 문화는 지성이 우수할 것을 전제(前提)로 한다. 문화는 생각을 높이지 않으면 향상될 수 없다. 우수한 지능은 고상한 문화를 추구하며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다. 열등한 머리는 가장 높은 문화를 당장에 누리도록 눈앞에 내밀었을 때에도 코웃음칠 것이다. 또한 많은 것이 신다운 **아들**들의 연속되는 사명에 달려 있고 그들 각자의 섭리 시대가 얼마나 깨우침을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

50:6.5 (578.5) 너희는 **루시퍼** 반란의 결과로서 20만 년 동안이나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가 **놀라시아덱**의 영적 금지령 밑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와 단절에 따른 장애를 회복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너희 세계는 반역한 **행성 영주**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물질 아들**, 이 두 가지 비극의 결과로서, 불규칙하고 얼룩진 길을 아직도 계속 추구한다. **유란시아**에서 **그리스도 미가엘**이 자신을 수여한 것조차, 세상의 초기 행정에서 심각한 이러한 잘못으로 현세에 일어난 결과를 즉시 상쇄하지 못했다.

7. 고립에서 얻는 보상

50:7.1 (578.6) 얼핏 생각하면, **행성 영주와 물질 아들딸**과 같은 초인간 성격자들의 유익한 계심과 영향을 빼앗겼으므로, **유란시아** 및 관련된 고립된 세계들은 가장 운이 나쁜 듯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구체들의 고립은 그 민족들에게 독특한 기회, 믿음을 실천하고, 우주가 믿음직한 것을 눈으로 보거나 어떤 다른 물질적 이유에 의존하지 않고서, 특별한 품질의 확신을 얻을 기회를 마련해 준다. 궁극에는, 반란의 결과로서 격리된 세계에서 태어난 필사 인간이 지극히 운이 좋다는 것이 입증될 수도 있다. 우리는 우주 사업에 배치되는 수많은 특별 임무가 그러한 승천자에게 아주 일찍 맡겨진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런 사업의 성취에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숭고한 확신이 필수이다.

50:7.2 (579.1) 이러한 고립된 세계에서 온 승천자들은 **예루셈**에서 자기들끼리 한 거주 구역을 차지하며 **불굴자**(不屈者)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고립되었을 때 견디며, 홀로 있을 때조차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기는, 진화된 의지(意志)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다. 불굴자라는 이 기능적 분류는 지역 우주에서 승천하고 초우주를 거치는 동안 내내 지속된다. 이것은 **하보나**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사라지지만, **파라다이스**에 이르고 나서 대번에 다시 나타나며, **필사 최후 군단**에서 분명히 지속한다. **타바만시아**는 최후자 지위를 가진 **불굴자**이며, 그는 시공 우주에서 처음 일어난 반란에 관련된, 어느 격리된 구체에서 살아남았다.

50:7.3 (579.2) **파라다이스** 생애를 통해서 내내,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보상은 노력을 따라다닌다. 그러한 보상은 개인을 보통 사람과

구별하며, 다른 인간 체험을 마련해주고, 최후자들의 집합체에서
신축성 있는 궁극의 행동에 기여한다.

50:7.4 (579.3) [예비군의 한 2차 **라노난덱 아들이** 발표하였다.]